

Q2

강원영동 지역에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봄철에는 한반도의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머물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지점에서 강한 편서풍이 생성됩니다. 이 편서풍이 역전층과 백두대간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고온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양양과 간성사이의 바람이라고 해서 양간지풍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의 양강지풍으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산불이 발생하면 화염이 옆으로 누우면서 열기를 쉽게 전달해서 불길의 확산이 빠릅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계곡이나 강을 건너 뛰어 2km 떨어진 곳에서도 불이 옮겨 붙어 확산이 빠릅니다.

또한, 강원영동지역에는 소나무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봄철 건조한 시기에 잎이 달려있고 그 안에 정유성분이 있어 불에 강하게 탈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10년 평균, 2023년)

구분	산불 건수(건)		피해면적(ha)	
	2023년	10년 평균	2023년	10년 평균
서울	4	11	6.1	1.8
경기(인천)	118	146	122.7	56.6
강원	66	78	250.8	1,101.1
충북	33	25	138.4	33.5
충남(대전, 세종)	94	50	2,564.2	286.0
전북	46	28	22.9	10.0
전남(광주)	62	47	956.9	111.2
경북(대구)	84	103	586.1	2,125.1
경남(울산, 부산)	88	78	344.1	277.8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